<1면에서 이어짐>

정보통신팀도 사태 파악에 들어갔다. 지난 17일부터 공식적인 피해 접수를 시작해, 이틀만에 24건의 피해 접수를 받았다. 1차적으로 피해 사례를 검토한 정보통신팀의 입장은 "가능성은 있다"이다. 정보통신팀 김진형 씨는 "확신할 수는 없다. 다만, 바이러스 체이서 수동 검사 이후에 오피스 파일들이 삭제된 점으로 보아 개연성은 있다"라고 말했다.

정보통신팀은 이와 같은 현상을 바이러스 체이서 제작사인 뉴테크웨이브 와 오피스 제작사인 마이크로소프트에 보고했다. 현재 마이크로스프트는 "오피스 프로그램이 오피스 파일를 삭제할 리는 만무하다. 바이러스 체이서로 인한 사례는 우리에게도 몇 번 보고되었다"고 전했다.

뉴테크웨이브는 18일 자사 연구소 엔지니어 4명을 우리 학교에 급파했다. 뉴테크웨이브 최신석 과장은 "최선을 다해 조사에 임하겠다. 차후 문제가 발견되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최 과장 등 4명의 엔지니어들은 현재 피해 PC를 점검하고 하드디스크를 수거해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바이러스 체이서 사용자들은 만약의 가능성을 대비해 즉각 설정을 바꾸는 게 좋다. 이번 문제는 모두 수동 검사에서 빚어졌다. 그런만큼 당분간 수동 검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수동 검사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예약 검사도 중단해야 한다. 정보통신팀은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수칙을 긴급히 발표했다.

먼저, 환경 설정에서 보안 설정을 '사용자 정의'로 설정한다. 다음 치료 가능한 파일 항목을 '사용자에게 보고합니다'로 변경한다. 마지막으로 예약 검사는 '사용 안함'으로 설정한다.

정보통신팀은 삭제된 파일의 복구를 도와줄 계획이다. 또한 자체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뉴테크웨이브에서 전문파일복구업체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ara의 수많은 글타래만큼, 이번 사건은 심각해 보인다. 여차하면 수년간 연구했던 논문이 '쥐도 새도 모른 채' 삭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학생자치단체에서도 목소리를 냈다. 대학원총학생회는 포탈 게시판을 통해 "이번 사건이 연구에 전념해야 할 학우들에게 불안감을 안겨다 주고 있다"며 조속한 실태 조사를 촉구했다.

바이러스 체이서는 우리 학교가 공식적으로 단체 구입한 바이러스 백신이다.

류승균 기자
DrRyu@kaist.ac.kr

IP 재등록하세요
ict.kaist.ac.kr로 등록

원내 IP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은 12월 10일까지 현재 사용 중인 IP를 반드시 재등록해야 한다.

정보통신팀은 12월 10일까지 IP 사용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IP 재등록은 정보통신팀 홈페이지(ict.kaist.ac.kr)를 통해서 진행된다. 단, 기숙사 및 서울 캠퍼스의 IP는 등록할 필요없다.

정보통신팀은 이번 실태 조사는 IP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2만 5천 개의 등록 IP 중 1만 개 이상이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IP라고 정보통신팀은 추측하고 있다. 정보통신팀은 "이번 기간 중 등록하지 않은 IP는 사용이 중단된다"라며, 현황 조사에 사용자들의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류승균 기자
DrRyu@kaist.ac.kr

모형항공기대회
이카루스, 금상 수상

우리 학교 모형항공기 동아리인 이카루스가 지난달 23일 경상대학교에서 열린 제6회 전국대학생자작모형항공기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총 20여 개의 작품이 출품된 이번 대회는 이틀간 진행되었으며, 첫째 날에는 보고서 발표가, 둘째 날에는 비행 시험이 있었다.

이카루스는 이번 대회에 활주로 없이 로켓식으로 발사되어 공중에서 날개가 펴지는 모형항공기를 고안해, 짧은 시간 동안 공중에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모형항공기를 출품했다.

이카루스 회장 이동규 학우는 "우리보다 더 잘 날았던 작품들도 있었다. 아마 창의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금상을 수상한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안재민 기자
jjaeminn@kaist.ac.kr

원생활관자치회
기숙사 건물 내 금연구역 지정 건의

원생활관자치회에서 전체 기숙사 건물 내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냈다. 이는 원생활관자치회의 주요사업 중 하나이며 12월 말에 결정안건을 학교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안건은 지난 2월부터 제기되었다. 원생활관자치회는 지난 3, 4월 중에 학교 내 흡연자, 비흡연자의 비율을 조사하였으며, 지난 7월까지 법률 및 시행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건강검진 결과 분석을 통해 조사를 완료해 지난 11월 초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안건을 결정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생활관 내에 흡연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학생들이 많으며 공공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모두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한다는 의견과 일부 흡연자들이 이러한 금연 조치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므로 일부의 흡연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 이 서로 맞섰다.

원생활관자치회는 11월 한 달 동안 학우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외부 일부에 대한 흡연 허가와 법령에 맞는 흡연실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원생활관자치회는 12월 2일까지 의견을 받아 12월 초에 흡연자단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논의를 거쳐 최종안건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권호 기자
bloodyred@kaist.ac.kr

재즈와 함께한 오케스트라의 밤
오케스트라 14회 정기 공연, 진보라 씨와 협연

사진 / 최정민 기자

▲ 진보라와 함께한 오케스트라의 공연

KAIST 오케스트라가 14번째 공연을 가졌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재즈 피아니스트 진보라 씨가 협연을 했다.

지난 18일 대강당에서, KAIST 오케스트라는 우리에게 뮤지컬 '캣츠'로 잘 알려진 '메모리'를 비롯해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줬다. 더불어, 재즈 피아니스트와의 협연임을 감안해 즉흥 연주와 낭만적 클래식이 적절히 조화되는 곡들로 선정했다.

1부에서는 우리의 혼이 담긴 아리랑이 재즈 파이노의 선율로 퍼져 울렸다. 이 곡이 바로 재즈 피아니스트 진보라 씨의 앵콜곡. 그러다 갑자기 오케스트라 송원태 악장이 바이올린을 들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피아노에 바이올린으로 멜로디를 맞췄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연주가 끝난 뒤에 만난 진보라 씨는 이렇게 말했다. "연주를 하면서 계속 눈빛을 줬죠. 오빠 좀 나오세요"

이번 공연은 연주뿐만 아니라 공연 기획까지 모두 학우들이 맡았다. 이들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학교 문화기술대학원의 '공연기획 및 경영관리' 수업을 듣는 학우들. 이 수업을 통해 이번 공연의 부감독을 맡은 장주연 학우는 "보도 자료 작성부터 장내 질서 유지까지 모두 우리 힘으로 해냈다"라고 말했다. 오케스트라의 송 악장은 "홍보를 잘 해주셔서 관객들이 많이 모였다. 연주를 하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되었다"라며 감사를 표했다.

류승균 기자
DrRyu@kaist.ac.kr

자기 주도적 삶이란
김영란 대법관 강좌

지난 18일 오후 4시 창의관 터만홀에서 많은 학우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영란 대법관의 리더십강좌가 열렸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 '자기 주도적 삶과 여성법률가'였다.

김 대법관은 "내가 서울대 법대에 재학할 때는 전체 130명 중 여자는 4명뿐이었다. 처음 판사를 발령받았을 때에도 남자 법관들이 나와 일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때는 '한국에서 여성법률가는 남들에게 불편만 느끼게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털어놓았다.

김 대법관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의 삶의 지위에 관한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사회의 약자를 위한 판결을 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 믿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관은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사회의 소수자가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학우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정향수 기자
water7227@kaist.ac.kr

(주)대덕과학
한국과학기술원 중앙창고가 운영하는 대덕과학쇼핑몰이 open하였습니다.
www.kaiststock.co.kr
■■■ 취급품목 ■■■
▶연구장비
▶연구소모품
▶연구시약
▶사무/전산용품
■■■ 연락처 ■■■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373-1
[한국과학기술원 중앙창고]
▶전화 : 869-2135~9
▶팩스 : 869-2410